

질투와 배신...음악에 녹아든 화가와 모델의 비극적 사랑

광주예술의전당 '어긋난 사랑' 리뷰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일환
김이곤 콘서트 가이드 해설
9월 26일 '모딜리아니와 백석...'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행복과 고통을 동시에 느끼는 연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떠나 언제나 흥미롭다.

광주예술의전당이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전 11시 진행되는 '음악산책 올 댓 러브'의 일환으로 '어긋난 사랑'을 지난 2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였다.

마티네 콘서트(오전에 진행되는 공연)를 표방하는 취지에 걸맞게 객석은 평일 오전 여유를 즐기려는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해설은 김이곤 콘서트 가이드가 맡았다. 특히 여성 중·장년 관객이 많았는데 가벼운 유행가와 지성을 결합된 설명이 더해져 몰입감을 높였다. 김씨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용인문화회소회관, 금정문화회관 등에서 콘서트를 전문적으로 해설해 왔다.

이번 작품은 라파엘로-미켈란젤로 등 이상화된 19세기 미술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김이곤 콘서트 가이드가 가브리엘 로세티와 엘리자베스 시달, 라파엘 전파 등에 얽힌 비화를 들려주는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라파엘 전(前)파'를 주창한 화가 '가브리엘 로세티'와 그의 작품 모델이었던 '엘리자베스 시달'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음악에 담았다.

1부에서는 화가들의 뮤즈였던 엘리자베스 시달 이야기를 들려줬다. 로세티는 단테에게 경도됐던 까닭에 그의 연인이던 베아트릭체와

시달을 '이상적 여성'으로 동일시했다. 그러면 시달이 자신만의 전속 모델이 되길 바란다.

이 같은 사랑의 감성은 소프라노 정성미의 목소리를 통해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중 '내 이름은 미미'에 담겼다. 또 테너 노경범은 가 르멜 작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을 불렀는데, 두 음악가가 실제 부부라는 사실은 몰입감을 높였다.

당시 몸 파는 여인을 주로 칭했던 '미미'라는 이름은 시달의 낮은 신분을 상징한다. 그림에도 시달은 로세티를 이용해 안젠가 불세출의 화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데, 그런 시달의 심리가 음악에 잘 녹아들었다.

질투와 배신의 이율배반은 어쩌면 사랑이 지닌 어두운 속성일지 모른다. 실제 로세티와 시달은 결혼 후에도 로세티의 끊임없는 외도에 바람 잘 날 없었다 한다. 로세티는 가장부 폐니콘포스, 모델 알렉사 와일딩 등과 바람을 피웠다.

이외에도 지글러의 '붉은 땀', 라 보엠 중 '이별의 노래', 오펜바흐 작 '자클린의 눈물', 글록의 '에우리디체 없이 될 할 수 있나' 등이 울려 퍼졌다. 악곡에 담긴 비극적 서정은 시달이 1862년 32살 젊은 나이에 자녀를 잃고 아편중독으로 요절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한편 광주예술의전당은 '사랑에 관한 여덟 가지 변주, 올 댓 러브'라는 주제로 주간 콘서트를 열고 있다. 다음 달 26일에는 '모딜리아니와 백석, 그대를 위해 부르는 슬픈 연가'를 비롯해 이후 '쇼팽과 리스트, 한때 빛났던 우정'(10월 31일), '안토니오 가우디, 신을 향한 미완성의 꿈'(11월 28일)이 펼쳐질 예정이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이선희 작 '먼 집'

'한국화의 재발견과 확장'

함평군립미술관, 10월9일까지 특별기획전

일반적으로 한국화는 '수묵'으로만 인식된다. 그러나 한국화는 채색, 추상, 구상 뿐 아니라 인접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경계가 확장되고 있다.

수묵의 새로운 모색과 확장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함평군립미술관은 오는 10월 9일까지 특별 기획전 '한국화의 새로운 모색과 확장'을 개최한다. '한국화의 재발견과 확장'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기획전은 2023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기념해 마련됐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국화 전공의 김인지, 성민우, 정지현, 이선희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들 작가들이 보여주는 채색, 수묵, 추상, 구상 작품은 동시대 한국화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민우 작가는 풀에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다. 풀의 근집을 인간의 무리로 상징하고 풀의 생태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초점을 뒀다. 전통 채색화의 재료인 비단, 분채, 석채, 금분을 매개로 세밀하면서도 공격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인다.

목탄으로 수묵화 같은 작품을 제작하는 정지현 작가는 사물과 이야기들을 정확한 묘사와 흑백의 단색조로 풀어낸다. 최근 작품에서는 개인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편한 현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인지 작가는 물의 특성과 조형성을 추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에서 보이는 움직임의 잔상과 강한 힘은 바닥에 중이를 놓고 온몸을 사용해 제작한 행위의 결과물이다.

이선희 작가는 전통 채색 재료를 토대로 이미지가 선명한 채색화에 집중하고 있다. 삶이 투영된 이야기는 물론 인물과 집을 통해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을 자신만의 화법으로 형상화한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작가들의 최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아울러 '수묵'으로만 인식되는 한국화에 대한 인식과 지평이 넓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을 초입 '숨: 쉬다'

한부철 개인전, 31일~9월 19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어느 해보다 극한 폭염과 폭우로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어떤 이에게 지난여름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상흔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쯤 '숨을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가을 초입에서 '숨: 쉬다'를 주제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양립동에 있는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한부철 작가가 전시회를 연다. 3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오픈식은 1일 오후 6시.

7년 만에 고향 광주에서 전시를 여는 한 작가는 그동안 고향이야기, 사유하다, 담다 등의 시리즈로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왔다. 3년 전 건강 악화로 일상이 멈추면서 한동안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작가에

게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시간은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건강 회복을 위해 숲을 걷는 것 외에 외부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양립동 화실 정원은 작가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다양한 생명들이 존재하는 정원에서 '숨을 쉬는' 생명체들을 만났다. 평소에는 무심하게 지나갔던 풍경도 눈에 들어왔다. 나무와 꽃, 새와 고양이, 나비, 잠자리 등 수많은 곤충들은 그의 친구가 되었다.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미술관 관계자는 "자연의 녹색이 주는 힘은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전시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숨'

한편 한 작가는 조선훈 회화과와 동 대학원 미술과를 졸업했다. 담다 등 개인전과 서울오 픈아트페어, 광주국제아트페어, 양립골목비

엔날레, 아시아 수채화 연맹전, 한국수채화협회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 생활문화를 경험해보다

ACC, 9월부터 문화예술체험·특화교육

아시아 음악 로드, 아시아 커피 로드, 아시아 공예 로드, 아시아 문화예술체험.

아시아의 생활문화를 경험해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강현, 이하 ACC)은 아시아문화예술체험과 아시아특화교육을 9월부터 11월까지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에서 운영한다.

먼저 아시아 여행가와 인류학자가 강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아시아문화예술체험은 9~11월(첫째, 셋째 주 수요일) 총 6회 열린다.

현장 음악평론가가 아시아 여행 기록을 자료로 '아시아 음악 로드'를 진행한다. 아울러 '배낭 속에 담은 음악'의 저자이기도 한 강사는 여행에서 접한 현지 음악을 들려준다.

'아시아 커피 로드'는 '커피와 인류의 요람, 에티오피아의 초대' 저자인 윤오순 강사가 한·중·일 커피 산업과 역사를 설명한다. 동아시아의 생두와 원두의 특성을 비교하고 커피를 직접 내려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시아특화교육 일환으로 찾아가는 '아시아 공예 로드'와 '아시아 예술로 나를 깨우기' 강좌는 9~11월 오후 강좌와 저녁 강좌로 나눠 17회 펼친다.

'아시아 공예 로드'는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소장품을 기반으로 생활 공예품들과 공예문화 발전 과정을 배운다. 한국의 나전칠기 공예, 인도네시아-투르키에 공예 등 아시아 공예의 예술적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인도 춤, 까탁(Kathak) 신들의 이야기를



'아시아 예술로 나를 깨우기' 강좌 장면.

<ACC 제공>

담다'를 쓴 오숙희 강사는 '아시아 예술로 나를 깨우기'를 강의한다. 북인도의 전통춤인 까탁 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강좌별로 하면 된다.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소리의 풍류

광주향제풍류보존회, 9월6일 북구문화센터



지난해 펼쳐진 '광주향제풍류' 모습. <광주향제풍류보존회 제공>

광주향제풍류보존회는 우리 소리의 풍치를 담은 '광주향제풍류'를 다음 달 6일(오후 7시 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조창훈 명인 등에 의해 2017년 복원된 광주향제풍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향제출품풍류도 불리는 광주향제풍류는 조선시대 전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거문고, 가야금, 대금, 해금 등으로 편성된 민간풍류다. 그 중 광주향제풍류는 연주 순서에 따라 크게 '본풍류', '잔풍류', '뒷풍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본풍류는 호흡을 고르는 다스름에 이어 박자와 내용에 따라 '상·중·영산'으로 이뤄진다. 잔풍류는 장단을 빠르게 바꾸는 '세영산'과 '영발', '타령' 등 총 9곡으로 구성된다. 그 중 대표적 정악이자 가악곡 '영산회상' 중 일부를 풀어 연주하는 '상영산'이 대목은 피리·대금 이중주가 들려줄 예정이다. 또 영산회상 두 번째 곡인 '중영산'은 상영산의 2~4장을 변주한 곡으로 음에 담긴 풍성한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최류민 기자 rubi@